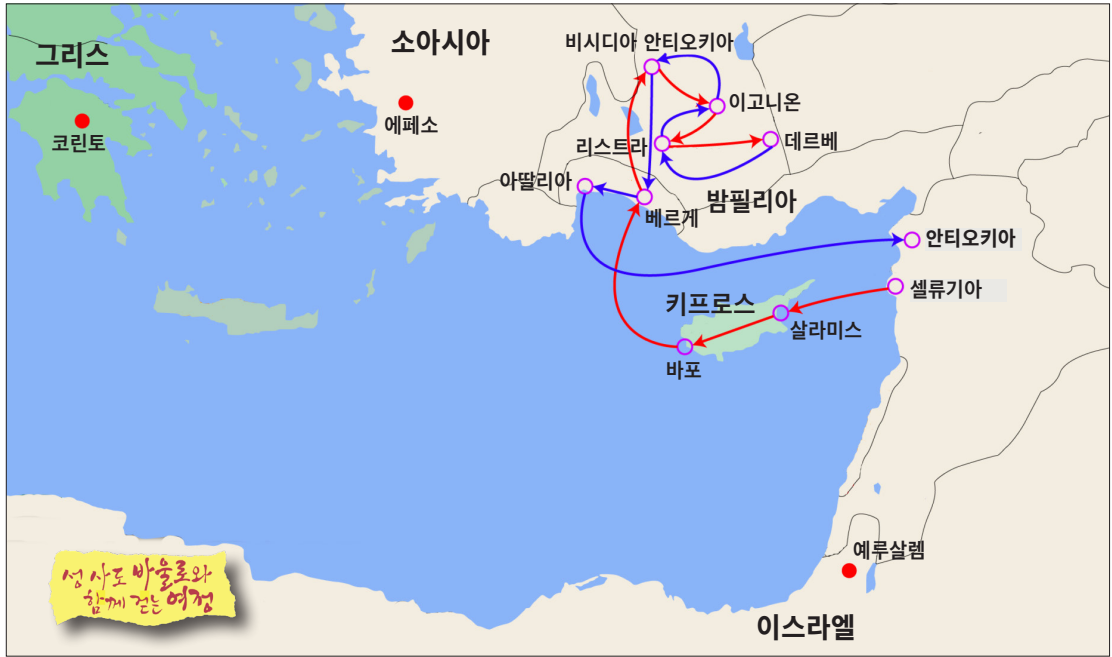




정교회주보

제2576호
2026년 5월 10일

한국 정교회 대교구 |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8길 43 | Tel.(02)362-6371 | Fax.(02)365-2698 | orthodoxkorea.org



제1차 선교 여행은 셀류기아에서 키프로스를 거쳐 밤필리아의 베르게, 비시디아 안티오키아, 이고니온, 리스트라, 데르베에 이르는 왕복 경로이다. 사도들은 아탈리아에서 배를 타고 시리아 안티오키아로 돌아왔다.

부활 후 제5주일
(사마리아 여인 주일)
성 시몬 사도
(제4조 • 조과 복음 7)

성 요한 크리소스툼 성찬예배

- 제 1, 2, 3 응송 사도경 21~23
- 부활 찬양송 부활절 의식서 16
- 부활 입당송 " " 38
- 제4조 부활 찬양송 82
- 성당 찬양송
- 부활 시기송 부활절 의식서 39
- 사도경 : 사도행전 11,19~30 ..254
- 복음경 : 요한 4,5~42 100
- 성모송 부활절 의식서 26
- 영성체성혈송 " " 42
- '우리가 참 빛을' 대신 '부활 찬양송'

[18회] 풍성한 열매를 거둔 1차 선교 여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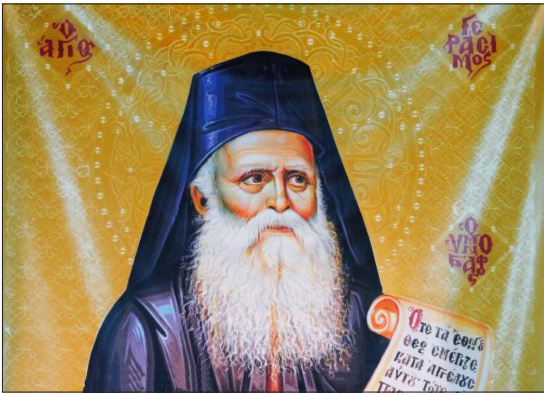
제1차 선교 여행은 마침내 그 긴 여정을 마무리하였다. 바울로와 바르나바는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 비시디아와 밤필리아를 거쳐 배를 타고 출발지인 시리아 안티오키아로 돌아왔다(사도행전 14,24-26)

수많은 시련과 기쁨이 교차한 여정의 끝에서, 두 사도는 공동체 앞에 서서 자신들의 공로를 내세우지 않았다. 오히려 하느님께서 이루신 모든 일과 이방인에게 믿음의 문을 열어 주신 구원의 역사를 전하였다.(사도행전 14,27) 이 보고는 공동체 안에 큰 기쁨과 감사의 마음을 불러일으켰다. 이는 교회가 특정 민족에 머무르지 않고 모든 이에게 열려 있는 보편적 공동체임을 드러내었다.

선교는 인간의 계획이 아니라 하느님의 주도적 은총 안에서 이루어졌으며, 교회는 그 은총에 응답하는 도구임을 확신하게 하였다. 이처럼 교회는 하느님께서 먼저 여신 길을 따라 걸어가는 공동체임을 깨닫게 되었다.

성 예라시모스 수도자의 성해를 모셔 오다

백은영 아가티 수녀



2026년 2월 3일, 그리스 크레타섬의 흐리스 빠기 수녀원에는 유달리 특별한 평화가 감돌고 있었습니다. 지중해의 푸른 바람이 스며드는 이곳에, 현대 정교회의 위대한 수도자이자 성가 작가이신 성 예라시모스 미크라기아나니티스(Όσιος Γεράσιμος Μικραγιαννανίτης)의 성해(聖骸)가 안치된다는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수녀원 안은 깊은 경건함과 기쁨으로 가득 찼으며, 이 신성한 순간은 단순한 성해의 이전을 넘어 주님의 은총이 우리 곁에 머무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성해가 성당 안에 조심스레 모셔졌을 때, 수녀원장님께서서는 한국에서 온 저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귀한 자리에 함께했으니, 성해의 일부를 한국 정교회 구세주 변모 수도원에서도 모실 수 있게 하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그 말씀에 가슴이 벅차올랐고, 한국 땅에 성인의 성해를 모시고 돌아갈 날을 소망하며 깊은 감사와 기도를 올렸습니다.

2026년 3월 17일, 마침내 구세주 변모 수도원에 성해가 안치되었습니다. 저는 성해 앞에서, 한국 정교회에도 성인의 영성이 깊이 뿌리내려 훌륭한 성가 작가들이 많이 배출되기를 간절히 염원했습니다. 정교회의 아름다운 성가 전통이 우리의 언어와 마음 위에 꽃피워, 겸손

과 찬양의 울림이 우리 삶 안에 오래도록 메아리치기를 기도했습니다.

성 예라시모스 수도자(1903~1991)는 1903년 에피루스 지방 드로비아니에서 태어났습니다. 절제와 신앙을 중시한 부모님의 사랑 속에서 성장한 그는, 아테네에서 수학하던 중 영적 스승 성 넥타리오스를 만나 깊은 내적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1923년 세속의 삶을 뒤로하고 아토스 성산으로 향한 그는 이듬해인 1924년 10월 20일 수도 서원을 하였습니다. 5년 뒤, 영적 아버지가 안식한 후에도 20여 년을 홀로 더욱 깊은 침묵과 고행 속에서 수도의 길을 걸었으며, 그 후에는 성인을 찾아온 수도자들과 함께하며 20여 년을 영적 스승으로서 진리를 나누고 수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특히 2,000여 곡의 성가를 창작한 그는, 영혼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찬양으로 정교회 성가 전통을 아름답게 빛냈습니다. 이러한 업적을 인정받아 세계 총대주교가 수여하는 공로상과 아테네 학술원의 공로 메달을 수상하였습니다.

1991년 생애 마지막 순간, "성 넥타리오스여, 저를 도와주소서"라고 세 번 외치며 안식에 드신 그의 삶은, 오늘날 우리에게 진정한 신앙의 모범이자 영적 등불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성인의 축일은 12월 7일입니다.

축복 받는 삶을 위하여

아타나시아 봉사자 엮음

삶에서 작은 것의 중요성

당신이 하고 있는 일이 정말로 의미가 있는지 의심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당신은 일하고, 분투하며, 다른 사람을 돕지만 눈에 보이게 달라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이럴 때, 소리 없는 피로가 밀려와 어서 포기하라고 속삭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가치 있는 것들이 모두 극적이고 화려한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하느님은 흔히 단순한 일과 평범한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적절한 순간에 건넌 친절 한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하루를 바꿀 수 있습니다. 홀로 조용히 드린 짧은 기도가 삶을 변화시키기도 합니다. 작은 몸짓 하나도 무시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씨앗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씨앗이 열매를 맺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작은 일에 충실하십시오. 비록 그 결과를 보지 못하더라도 선한 일을 하십시오. 비록 다른 사람의 칭찬을 받지 못하더라도 아름답게 사십시오. 결국 인정받는 것은 소음이 아니라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무도 모르게 모든 것을 보고 계시는 하느님은, 당신이 주위에 얼마나 많은 빛을 가져왔는지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대신 좋은 일을 계속하십시오. 그러면 바라던 복된 결과를 보게 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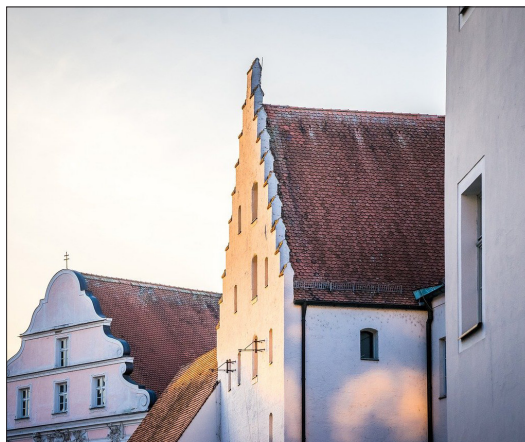


가족에 대하여

가족은 어딘가에 속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처음으로 배우게 되는 곳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가족은 실수가 없는 곳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랑이 실수보다 훨씬 더 큰 가치를 지녀야 하는 곳입니다. 가족과 가정 안에서 우리는 용서와 기다림, 희생, 자신을 낮추고 다른 이를 높이는 법을 배웁니다. 가족은 바로 우리 영혼의 뿌리가 형성되는 곳입니다.

반복되는 일상 때문에 당신과 가족 사이의 끈끈한 유대가 식어버리지 않도록 하십시오. 서로 이야기하고, 귀 기울여 듣고, 함께 시간을 보내십시오. 가족은 단지 혈연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경청하고 보살피는 마음으로 이루어집니다. 아무리 짧더라도 함께 드리는 기도는 그 어떤 것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평화를 가져다줍니다.

가족이 곁에 있을 때 그들을 사랑하십시오. 서로 화해하는 일을 미루지 말고, 교만이 앞서지 않도록 하십시오. 모든 것이 빠르게 변하는 세상 속에서 가족은 하나의 피난처입니다. 그리고 가족이 신앙과 존중 위에 세워질 때, 그것은 세대를 이어가는 축복이 됩니다.





■ 서울 성당 음식 축제 개최

오는 5월 31일(오순절 주일), 성찬예배 후 음식 축제가 열립니다. 음식 축제는 우리 주변에 정교회를 알리는 선교적 차원의 행사입니다. 신자 여러분의 많은 준비와 참여 부탁드립니다, 주변에도 널리 알려주셔서 정교회 선교를 위한 좋은 기회가 되도록 합시다.

■ 수요일 온라인 영성 강론

매주 수요일 저녁 8시부터 9시까지, 온라인(Zoom)을 통해 암브로시오스 대주교의 영성 강론이 진행됩니다. 이 강론에서는 프르피리오스 성인의 저서 『향기로운 삶과 말씀』을 함께 읽으며 그 깊은 뜻을 배워갑니다. 세례 신자와 예비 신자 모두 참여하실 수 있고, 강론은 한국어와 영어로 통역이 됩니다. Zoom 링크는 각 성당 사무실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중에 마련된 이 소중한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 서울 성당 음향 시스템 교체

성 니콜라스 대성당 음향 시스템 교체 작업에 신자 여러분의 재정적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 우리은행 1005-101-635905
(한국정교회성니콜라스대성당)

■ 암브로시오스 대주교 연세대학교 강연

지난 4월 30일(목), 암브로시오스 대주교께서 연세대학교 '기독교 영성사' 수업에 초청되어 "정교회 전통에서의 성화(이콘)의 역할"을 주제로 강연하셨습니다. 이번 강연에서는 정교회 전통 안에서 성화가 수행하는 역할을 살펴보고, 성화가 단순한 종교 예술을 넘어 교회를 위한 '시각적 신학'이자, 신자를 하늘로 이끄는 '창(窓)'으로서 예배와 기도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게 하는 역할을 지닌다는 점이 강조되었습니다. 대학원생들은 이 주제에 큰 관심을 보였으며, 강연 후에는 질의응답이 이어졌습니다.

■ 故 권언건 바울로 사제 안식 9주기 추도식

바울로 사제 안식 9주기를 맞아, 울산 성당(5월 3일)과 용미리 성당(4월 19일)에서 성찬예배와 함께 추도식이 거행되었습니다. 생전에 말년까지 극진한 사랑과 헌신으로 한국 정교회를 위해 봉직했던 바울로 사제를 기억하며 깊이 추모합니다. 그분이 천상에서 부활의 빛 가운데 머물며 한국 정교회를 위해 중보해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아울러 바울로 사제의 가족분들 역시 하느님의 뜻 안에서, 부활의 빛과 기쁨 속에서 살아가기를 기원합니다.

■ 대한성공회 서울주교좌성당 축성 100주년 기념식

지난 주일(3일) 오후, 대한성공회 서울주교좌성당 축성 100주년 기념식이 있었습니다. 대교구를 대표하여 암브로시오스 대주교와 크리스토퍼 보제가 참석하였으며, 대주교께서는 인사말을 전하셨습니다.

영성의 샘터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

어느 경험 많은 사부가 말했다.
"자주 옮겨 심은 나무는 열매를 맺지 못한다.
수도자도 인내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기도처를 바꾸면 덕으로 나아가지 못한다."